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에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서울연회 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태기행이 10월 17일 오전10시부터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마음에 와 닿는 시편을 골라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 예배 전에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소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들의 묵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예배 후 준비된 식사를 맛있게 드시되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식 당 봉 사 : 강순배 권미숙 이소혜 이소애 김진경 장재영 최숙화
10/16 식당 봉사 : 박영신 임영선 김순자 곽혜자 박규석 구성실
오늘설거지봉사 : 이지훈 안 현 하진채
다음 주 설거지 : 박은혜 이나래 하진솔 강지은
새 교 우 : 정윤선(5남) 김 라(5여) 김재환(4남) 김진선(6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4. 주 우리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푸른 하늘과 강렬한 태양이 눈부신 이 멋진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욕심과 염려로 뒤엉킨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잔잔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노래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속에서 겸손하게 익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맺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불의하고 위선적인 세상에 대한 실망 때문에 때때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숨과 의심의 재에 뒤덮여 있던 믿음의 불씨, 기도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주님을 믿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11:28-30 인도자

♣ 교 독 문 23. 시편43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93(통447). 오 신실하신 주 다함께

♣ 성경봉독 I. 요일 4:1-6 오재환 선생
 II. 눅 18:1-8 이근식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하나님에게서 난 영 손성현전도사
 II. 포기하지 않는 믿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장영숙 손성현 안경아 한상익 정영선 강순배 김성한 조영순 조병무
 송양진 김순복 김용길 최영혜 김일랑 이은옥 박시내 배삼순 권호진
 백묘현 서원금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진훈 노순옥 이재문 장대호
 한숙경 조관행 홍선희 한상경 임 영 정경례 강세기 이소애 양재성
 임미심 한상균 김보라 조병익 조정연 김혜영 고원영 김정애 B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미순 김종철 고영애 박상규 이광섭 김수연 이봉배
 이성범 이소순 이수정 배재경 이정은 정두리 조순덕 최윤희 이민범
 장동훈 정은선 조재현 정원석 김현영 이종현 정현선 무명1

감사헌금:

정두리 박수연 문복순 배삼순 권호진 박창운 허정윤 정종삼 김순복
 박규신 허명선 안보혜 이민철 김민정 강순배 장원호 박성희 문희창
 장준호 박옥순 무명2

녹색꿈헌금:

윤정덕 구성실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범운

	장혜숙	백혜숙	조순덕	정두리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노순옥
	임정자	최경미	이소순	서원금
	문영혜	이명희	박정숙	곽혜자
	안정숙	진정숙	박옥순	문금석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박호선	허정윤	허정윤	김현주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정영선	정옥영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박미영
	박혜경	조향미	박성희	정현선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벼

이 성 부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 양	488(통539)	.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절망과 냉소로 잠식된 우리의 영혼을 기도로 되살리십시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끈질긴 믿음으로 빛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간혀 스스로도 절망이 되어 버린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현실의 장벽만 바라보며 쉽게 포기하던 영적 태만을 뉘우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꿈꾸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설교: 장영숙 전도사 기도 : 장혜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천승호 학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이성범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홍복선 권미숙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비처럼, 은총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단비교회는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의 비닐하우스에는 아주 연륜 있는 목수의 연장처럼 온갖 공구들이 가지런히 내 걸려 있고, 이미 집 모양을 갖춘 실내에서는 문짝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고, 짜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무척 더더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무려 10년 동안 건축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옥 예배당을, 그것도 목사 내외가 드문드문 외부의 힘을 빌려 짓고 있으니 그 10년 세월도 오히려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니, 오래오래 집을 짓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자작(自作)을 하는 까닭입니다. 한옥을 짓기 위해 20년 전 연습을 했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한 후 마을에 계신 고령의 대목수에게 집짓는 법을 배웠답니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노인을 모셔다가 한수한수 나무 고르는 법, 나무 다루는 법, 나무 다듬는 법을 배워가면서 지은 첫 작품이 지금껏 예배당 겸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너와집입니다. 집 짓는 일에 초보자인 정훈영 목사님도 자기 힘으로 집을 짓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 예배당도 스스로 짓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사실 시골 교회에 현금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일 년에 2천 만 원쯤 현금이 모일 때마다 재료를 사고, 그 재료로 해마다 조금조금 그러나 하루도 쉼 없이 예배당을 세워 올린 것입니다. 대개 건축을 하면 집터나 아직 완공도 안 된 건물을 담보 잡혀 건축비를 융통하게 마련입니다. 수 억 짜리든, 수 백 억 짜리든 금융비용 없이 건축하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비교회는 농민들이 쉽게 빌려 쓰는 농협 빚에도 손대지 않았습다. 그 혼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대견스럽습니다.

예전에 어느 도시교회가 예배당 짓는 모습을 둘러보고 건축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그 교회의 지(枝)교회처럼 이름을 바꾸자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다지요. 그런 자존감 없이 10년 세월을 예배당 건축에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그 뜻을 공감하는 도시교회의



청년들이 틈틈이 와서 일을 돕고, 아예 몇 달씩 동거하면서 노동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다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집이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듯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시골교회 예배당이 마치 나라의 국보급 보물처럼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단비교회 친구로 줄 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비교회의 새 예배당은 우리 색동교회처럼 아직 셋방 처지인 교회들의 수련장이 될 것입니다. 그 넓은 마당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한 밤 중에는 별을 헤아릴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칠 것입니다.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의 부스러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랬듯이 고향의 대청마루 노릇을 하게 된다니 정말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단비교회 때문에 모처럼 교회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아마 100년은 거뜰 없을 한옥예배당은 ‘공간의 경건’이 지닌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시 65:10)

- 단비교회 봉헌 예배(2011. 10. 3)를 앞두고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